

새싹 불자를  
키웁시다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목가적 전통 자리 차지한 '현대성' 그려

우리말 꼭꼭 씹어 먹기

사람에게 첫인상은 중요하합니다. 좋은 인상으로 호감을 갖게 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생활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렇다면 좋은 첫인상이 선천적인 걸까요? 아니라고 봐요. 스스로 좋은 생각과 밝은 표정으로 남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면 누구나 호감이 가는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승광승굴' 한 생김새에 '웅승깊은' 생각을 가진 사람, 누구나 부러워하는 스타일이겠죠? 그런 사람은 절대로 '허투루' 살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승광승굴**: 얼굴 생김새가 귀엽성이 있고 너그럽게 생긴 모양. 성질이 까다롭지 않고 수더분하고 원만한 모양. (그의 마음은 승광승굴 너그럽다)

**웅승깊다**: 1.생각이나 뜻이 크고 넓다.(홍 거사는 웅보를 중흥시키고는 어딘지 웅승깊은 데가 있다고 생각했는지 그날부터 밤을 이용하여 글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였다.)<문순태, 타오르는 강> 2.사람이 되 바라지지 아니하고 깊숙하다.(천장과 벽은 물론 시골 가장자리까지 검푸른 이끼가 돋은 그 어둡하고 웅승깊은 웅담집 안을 울려 나오는 물방울 소리는...<후략>)<한승헌, 해일>

**허투루**: 아무렇게나 되는대로.(할아버지 앞에서는 말을 한 마디도 허투루 할 수가 없었다)

인명옥(시인·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논술의 자신감  
이 책은 꼭 읽어야 해

보들레르 작 '악의 꽃'

근대시의 성전(聖典)으로 꼽히는 <악의 꽃>이 출판된 것은 1857년이다. 보들레르는 청년시절부터 실험을 기울여 다듬어온 시를 정리하여 시집 <악의 꽃>을 출판했으나 이 시집은 풍속문란의 혐의로 압수당하여 100프랑의 벌금과 시 6편의 삭제 명령을 받고 나오지 않았다. 보들레르는 굴하지 않고 1861년에 새로 35편을 더하여 '우울과 이상' '파리의 정경' '술' '악의 꽃' '반역' '죽음' 등 6부로 나누어 재판(再版)을 간행했다. 그는 새로 시를 추가하여 제3판의 출판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그의 사후인 1868년에야 햇빛을 보게 되었다. 브뤼셀에서 출판되었는데 이때 <표류물>이란 제목 하에 151편의 시를 수록했어. 또한 보들레르는 스무 살 되던 해(1841년) 먼 인도양 항해에 나서게 되었고 열대 섬 여행 중 본 풍물은 '악의 꽃'의 풍부한 자양분이 되기도 했어.

보들레르의 대표작인 '악의 꽃'은 대부분 1846년에 씌어졌는데 그가 면밀히 관찰한 것은 시대정신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방법들인 유행, 화장술, 의복, 언어 등등이었어. 이를 통해 보들레르가 다룬 것은 '현대성' 이에요. 이는 오랜 동안 영감의 원천이었던 목가적 자연은 이제 새롭고 위험한 열정의 무대인 현대적 도시에 그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화려하고 아름다

운 도시의 뒷골목에는 우울과 절망과 불안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보들레르식 현대성의 양면이죠. 제1부는 '우울과 이상' 편으로 자기 존재의 이중의 기원을 환기하며, 제2부 '파리정경' 제3부 '술' 제4부 '악의 꽃' 제5부 '반역' 편은 내부분열의 비참함으로부터 구해줄 내 자기 유혹을 나타내며, 제6부 '죽음' 편으로 완전한 의미의 구원을 주는 유혹으로 고전주의 시대를 완성하면서 현대성의 시대를 열었어.

이 시집이 나왔을 때 고답파의 거장 프랑수아 드릴은 "참신한 창의의 구현"이라 칭찬했고, 빅토르 위고는 "새로운 전환을 창조했다"고 격찬했어. 이 시집이 뚜렷한 영향과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것은 상징

화려하고 아름다운 도시 뒷골목에  
우울 절망 불안 존재 '이중성' 천착

주의 시파의 융성기에 이르러서였어. 보들레르는 인유와 우주를 구사하고 초감각적인 것과의 교감을 시도했는데 그의 시상은 "항기와 빛깔과 물체의 소리가 서로 화을 한다"는 교감의 시구에 단적으로 드러나 있어. '악의 꽃' 사랑 시편 중 가장 많은 편수(19편)의 작품을 진느 뒤발린 검은 비녀에게 바치고 있지요. 진느 뒤발린이라는 여인은 보들레르에게는 관능적인 기쁨과 잔혹함을 동시에 심어준 악마적 사랑의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지요. (진느의 신비로운 매력에 찬미하는 한편으로 육체

밖에 없는 짐승으로서의 벌거숭이로 보기도 했어) 잔느 뒤발과 헤어진 후에도 보들레르는 그녀의 생활비를 조달해줬어. 그 밖에도 사바티에 부인에게 익명의 편지를 보내기도 했어. '공덕' '고백' '정신적 새벽' 등의 시를 그녀에게 보내지만 그녀와는 사랑보다 우정으로 남게 되지요.

보들레르는 <악의 꽃>이란 시집을 통해 위선을 하지 않고 감각적인 묘사로 진솔하게 시를 쓴 시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들레르 시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만물조응과 공감각이론이 적절히 나타나고 있지요. 또한 보들레르는 절망, 반항, 전락과 참담한 신을 모독하는 언사를 통해 미의 지배 속에서 구원을 찾으려 했어. 그에게 있어 시는 현실 속에 존재하는 유일한 리얼리티이며 기대의 거울이기도 했어. 음향, 색채, 향기와 지각이 뒤섞인 세계를 영상의 상호 환기를 통하여 표현하려는 그의 시는, 랭보, 베를렌, 말라르메, 발레리 등에게 큰 영향을 미쳤고 상징주의의 선구자로서 각광을 받게 되었어.

발레리는 "그보다 위대하고 재능이 풍부한 시인들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중요한 시인은 없다"고 격찬했어. 에드거 앨런 포의 지적세계에 감동하여 낭만파, 고답파의 구에서 벗어났으며 명석한 분석력과 논리와 상상력을 동원하여 인간심리의 심층을 탐구하고 고도의 비평정신을 추상적인 관능과 음악성이 넘치는 시에 결부한 점에 그의 위대성이 있어. 보들레르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강연여행을 하던 중 건강이 악화되어 46세에 사망했어.

인명옥(시인·고양애고 문예창작반 강사)

우리들 생각

'우리들의 생각' 코너는 사찰 게시판에 올라온 어린이,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공간입니다. 불교계에 바라는 점, 입시상담과 교육문제 등 주제·형식을 벗어나 여러분의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접수 e-메일:rolling@paran.com)

# 법당에 가면 절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전 불자이기는 하지만 절에 가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절을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잘 빠진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ID:girlstopt)

절은 마음 수행법입니다.

불교에는 보물이 셋 있습니다.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부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모은 경전, 그 길을 따라 수행해가는 스님들입니다. 세번 절을 하며 이 분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절을 하면 이마와 양 팔꿈치 그리고 무릎을 땅에 붙이는 모습이 되고, 이 상태에서 손바닥을 하늘로 향하여 부처님의 양 발을 받들게 됩니다. 티벳 같은 곳에서는 아예 몸 전체를 펴서 부처님께 바치기도 합니다. 그분들은 이렇듯 경건한 마음을 유지하면서 허미라야의 높은 산을 순례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한다 해도 절은 경건한 마음의 표현입니다.

절을 할 때는 우선 합장하고 발을 모은 상태에서 내려가고 올라올 때 허리를 반듯하게 펴야 합니다. 다음으로 무릎을 바닥에 놓을 때 최대한 조심스럽게 그리고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무릎 연골은 아주 연약하므로 충격을 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 절을 마칠 때에는 이마를 땅에 댄 상태에서 반드시 손을 모아 합장을 합니다. 이는 불법승에 절을 마치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을 주의하여 절을 올바르게 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주로 건강에 집중하지만 사실 불자들에게 더 중요한 점은 '수행'이라는 것이요. 절 '운동'과 절 '수행'의 차이점은 바로 마음가짐입니다. 서울 육천암 청소년 지도봉사 운산 스님

Comic strip titled '논술의 자신감' (Confidence in Essay Writing) by Jeong Eun-jo. It features a character named Kierekego who discusses the importance of confidence and understanding the subject matter in writing. The comic is divided into several panels with dialogue and illustrations.

Advertisement for '두리안' (Durian) from 'www.durianshop.com'.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durian fruit and text promoting a sale. Key information includes: '가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www.durianshop.com', and contact information for the shop.

Advertisement for '약왕사 名品紅蓼' (Yakwangsa Red Amaranth). It features an image of the plant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Key information includes: '9중 9포(아홉번 피고 아홉번 말림)의 약왕사 名品紅蓼', '나뭇잎에서 직접 만드신 "홍삼 엑기스"', '명품홍삼은 약왕사 스킨에서 직접 만드는데 100%순수 홍삼입니다.', '약왕사 9중 9포 홍삼엑기스(두달분) 30만원 90ml 60포', '도중 오가피엑기스 15만원 90ml 60포', 'www.msj.co.kr'.

Advertisement for '민속죽염' (Minsookjukyeom). It features an image of a person in a field and text describing its health benefits. Key information includes: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민속죽염', '민속죽염 2500원 (6인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www.msj.co.kr'.

Advertisement for '전강 대선사님 인가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역서' (Jeonggyeong Daeonseon's Inga-jeoja Daewon Munjaehyun Seonsa-nim's Recited Text). It features a portrait of a man and text describing the book. Key information includes: '주머니 속의 심경', '반야심경은 부처님이 설하신 경 중에서도 절제된 경으로 으뜸가는 경이다.', 'www.zenparadise.com'.